

대북 리스크와 단기 과매도 국면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 G2 불확실성에 대북 리스크까지 반영하며 KOSPI는 주요 지지대를 이탈하며 단기 불안 확대 예상
- 북한이 48시간 내 대북 방송 중지 요청에 따른 협박으로 주말 불안감 확대 가능성
- 하지만 대북리스크가 추세적 영향을 준 적이 없고 점차 악재 영향력 축소되어 단기 재료 그칠 듯
-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와 비 펀더멘탈적 영역이란 점에서 과매도 국면에 대해 고민할 것
- KOSPI 1,880p까지 하락 시 20일 이격도 94.2로 금융위기와 美 신용등급 제외 시 바닥권으로 장중 낙폭 확대될 경우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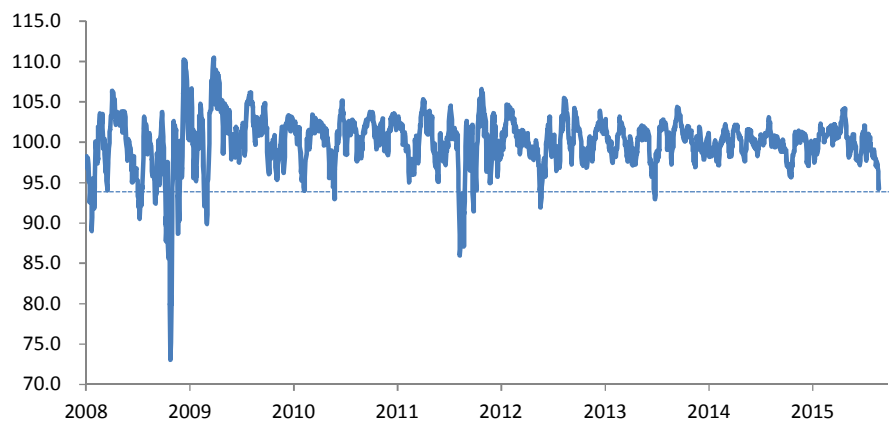
전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국내 증시는 대북 리스크까지 반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일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증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는 의미 있는 지수 지지대를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리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지대는 연초 저점 수준인 1,880p 수준이다.

금일 시장의 불안감은 북한이 48시간 내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점이다. 그 시한은 토요일 오후 5시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호한 태도로 대북 방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 포격이 처음이고 마침 데드라인 시점이 주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금일 증시에서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대북 리스크가 증시 추세에 영향을 준 적이 없고 최근으로 올수록 악재의 영향력도 점차 축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포격 사태 역시 단기 변동성 재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과거 핵실험 등 여러 대북 리스크에 국내 증시는 수일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일 혹은 장중 조정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오전 장에서 낙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학습효과와 비 펀더멘탈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과매도 국면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KOSPI가 1,880p 부근까지 하락할 경우 20일 이격도는 94.2까지 하락하면서 금융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국면을 제외하고 바닥권에 근접한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예단이 쉽지 않지만 대북리스크로 장중 낙폭 확대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KOSPI 1,880p 도달 시 20일 이격도 94.2까지 하락



자료: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와 계열사관계가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